

# 풍운의 한국농업! 희망은 있는가?

■ 정복소/ 고려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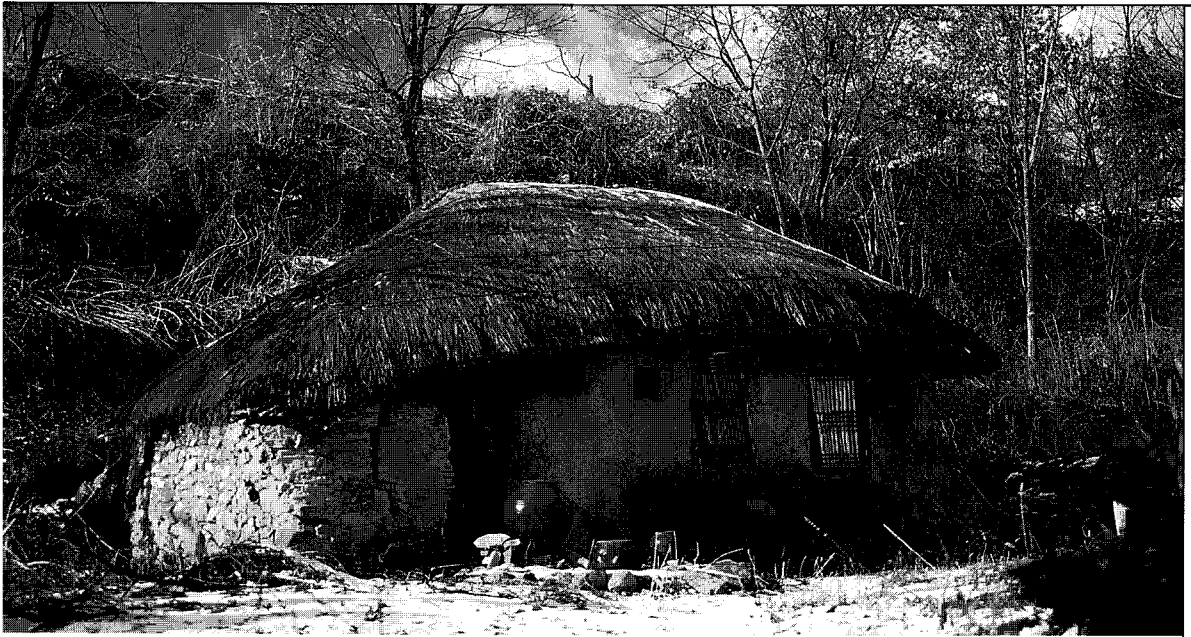
**우** 리민족은 용마루처럼 길게 뻗은 반도의 한자락 기슭에, 굽이치는 강을 벗하여 삶의 등지를 타고, 긴긴 세월을 한결같이 찬란한 농경문화를 꽃피워 살아 왔다. 그러나 거세게 밀어닥친 60년대의 산업화 정책과 20세기 말에 재편된 새로운 세계정치와 무역질서는 우리농업을 열대사막으로 내몰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농업은 동으로 가야할지 서로 가야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서 정확한 해도나 나침반이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민족의 역사 문화발전과 궤를 같이 해온 우리 농업이 해외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맞아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필자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농업의 장래를 조망 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농업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맹주해은 '산업화·기술개발' 서서히 한계 봉착  
불확실한 미래, 생존산업인 농업이 완곡시켜 줄 것**

산업혁명이후 지난 1세기동안 과학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여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생산력의 신장을 가져왔다. 따라서 기계문명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는 물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은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케 하였으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역을 단 몇 시간 만에 날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의 발전은 세계어디에 있어도 마치 이웃집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과 같도록 함으로서 언제나 같이 생활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에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과학기술 덕택이다.

물론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술발전을 가져왔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기계적 기술



의 발전은 노동력 부족에 의한 노임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고된 농업노동으로부터 해방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기술의 또 다른 한 축인 생물학적 기술발전은 제한된 토지자원에서 오는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식량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소 시켰다. 아울러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비료·농약기술의 발전도 산출량 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산업화와 기술개발에도 이제부터 저 먼 곳으로부터 서서히 검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여타직종이 새로 출현

하기도 하지만 여타직종도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서비스업에 과도한 인구가 집중하는 것도 그 이유이며 서비스업의 과당경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실업은 범세계적인 문제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기계적 실업은 증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이 강력해지면 해결수록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불완전경쟁 시장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유희 인력의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신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야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20세기 초에는 자동차가, 말에는 IT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도 산업이었으나 그것도 머지않아 한계를 들어 낼 것

“

## 존속여부에 회의적시각 많지만 우려만큼 비관적이지 않아 남에게 의존하는 생명은 위험, 인류존속과 농업미래 비레

”

이 분명하다. 또 ET(환경, 에너지 산업), BT(생명공학 산업), NT(나노산업)등이 각광 받는 산업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고도의 자본 집약적이고 두뇌집약적 산업으로서 이들 산업이 성장률을 높일지는 몰라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 큰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의문이다.

시장경제는 기술의 고도화에 의해서 무한한 공급능력을 가능하게 할지 모르나 세계적으로 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가 커진 현 상황에서 시장개척(수요확대)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대적으로 과잉공급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수요확대나 수요창조를 해야 하는데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한계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국가나 집단보다는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국가 및 집단의 소비 증대가 이를 해결하는 돌파구이다. 즉, 소득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시장은 자연히 좁아지게 되며 좁은 시장은 투자유인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간의 소득불균형 해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이 클 때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서(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먹고 사느냐(경제성장)하는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

착 할 때 생존산업인 농업은 이를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농업을 낮은 소득 탄력성계수나 일국의 GNP 구성비를 가지고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소득탄력성은 시·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수가 양수가 음수가 될 수 있고 음수가 양수가 될 수도 있다. 농업, 농촌은 인간에게 유익한 많은 효용을 제공해 주는 비시장 재화와 용역이 있으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한 예로 푸른 들판위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농촌 풍경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느끼면서 얻게되는 만족감은 도시생활에 찌든 도시인에게는 그 효용이 매우 클 것은 분명하다.

한편 다원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지출항목이 소득항목으로 계상되어 도시·산업사회를 과대평가하는 반면 농촌사회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생활자의 명목 소득은 높지만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오히려 낮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더하여 정신소득의 개념까지 도입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

경제학 이론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면 정신적 풍요도 동시에 가져와 복지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반비례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최근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활간편화 운동과 자연주의 사상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 농업, 諸行無常에도 멀하지 않는 유일산업

이상에서 농업과 농촌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분명히 우리농업은 그 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발전애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농업은 태생적으로 경영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여 시련은 있을지라도 결코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문명에 찌든 현대인들이 진정한 삶의 돌파구로 축소 소비지향적인,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경지에서 중위 기술의 기계 및 인력을 사용하여 반자급자족식 가족농업경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도시소비자들은 건강지향적인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탈공해 농산물의 수요를 증대시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거래를 할 가능성이 큰데다 도시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위생적인 식료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지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세계적으로 생활간소화 운동이 전개되어 비농업부문의 성장에는 한계성이 노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3Ps라고 한

다. 즉 인구폭발(Population), 공해(Pollution), 빈곤(Poverty) 문제이다.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폭발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이 절대적인데 환경과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식량수출국에 있어서 국내 공급능력과 수출여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보이지 않는 정치적 장벽을 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태생적으로 협소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경영규모를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비 구조면에서 경쟁력을 얻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힘든 작업이다. 때문에 중·소규모의 고위생, 고영양, 고품질의 식품을 개발 생산하는데 핵심역량을 집중시킨다면 희망이 있다고 보여 진다. 현재 소비자들은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농산물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가에서 말하는 「諸行無常」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즉, 세상만물은 부침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인류가 존속하는 한 결코 멀하지 않는 산업은 유일하게 농업이라는 산업이다. 왜냐하면 농업은 유일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을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농약정보**